식생활에 끊임없는 불안을
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,
사람들이 건강이라고 부르는 것도
성가신 병보다 그다지 낫지 않다.

조지 데니슨 프렌티스



식생활에 끊임없는 불안을 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,
사람들이 건강이라고 부르는 것도 성가신 병보다 그다지 낫지 않다.

식생활에 끊임없는 불안을 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,
사람들이 건강이라고 부르는 것도 성가신 병보다 그다지 낫지 않다.